

大學院間의 協同體制

金 蘭 洙

(延世大 師大學長)

I. 머리 말

이번에 大學院의 運營實態에 대한 조사를 거듭하면서 5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두드러지는 느낌은 大學院間의 隔差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印象的 判斷을 갖게 하게 된 점이다. 각 大學院의 自體報告資料에 대한 統計처리결과에서도 이 점이 밝혀졌지만 실제 방문관찰과 면담결과에서도 異質性이 심함을 感知하게 되었다.

學部의 教育與件에 있어서는 大學(校)間 隔差가 常存하지만, 質的統制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學問的 標準의 維持 내지는 向上이 期해져야만 할 大學院教育에 있어서 異質度의 幅이 크다는 것은 碩士와 博士의 學位가 지녀야 할 公信力의 提高라는 觀點에서 크게 問題狀況에 처해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大學院教育의 質的統制와 刷新은 大學敎員의 充員 및 資質 向上의 觀點에서 절박한 政策課題가 될 뿐 아니라 知識產業의 主軸을 이루는 現代產業의 高度 成長에 필요한 高級專門人力의 養成이라는 社會的 要請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必須的 課題가 되기 때문이다.

오래 歷史를 지닌 歐美先進國에 比하면 大學 教育體制를 定立할 期間이 많지 않았고, 나라 전체로 財政的 基盤이 취약하여 大學教育에 대한 投資가 빈약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大學院教育體制上의 問題도 巨視的 眼目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學院教育의 質的強化와 프로그램의 擴充이 國家發展에 直結된다는 점에 비추어 行政的 및 財政的 支援이 實質的으로 이룩되도록 획기적인 政策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同時에 自力更生의 一環으로 우선은 既存의 敎授와 學術的 研修資源을 相互活用하기 위한 大學院教育의 協同體制 樹立이 必要하다는 점을 세 가지 觀點에서 論議하여 보고자 한다. 즉, 教育經費의 節減, 教育效率의 向上, 그리고 學問研修風土의 開放性을 伸張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보는 점들이다.

II. 教育經費의 節減

中等學校의 수업료에 비하여 大學의 登錄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大學生을 둔 學父母의 家計費에 壓迫要因이 되고 있는 점은 周知의 사실이고 해마다 登錄金の 引上은 上限線에 이른 것으로 社會적 爭點化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우리나라의 大學教育費를 國際的으로 比較하면 그 容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最高學府로서 名實 共히 尖端을 가는 새로운 學術理論을 研修시키고 獨創的인 研究로 學問의 새로운 境地를 開拓하도록 研究를 助成하여야 할 大學院의 敎員 및 研究指導費는 學部 課程보다 더 많이 들고 또 들어야 한다는 事實에 대해서는 大學運營者들이 外面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짙다.

지난날 大學院을 大學(校)의 對內外的인 印象을 높이기 위한 裝飾의 기관으로 그릇 認識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 一般大學院은 있으면 좋은 악세사리로 그리고 夜間特殊大學院은 취약한 大學(校) 財政을 補充하고 收入源으로 여겨서 소홀히 다루는 경향조차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大學(校)의 명예를 걸고 책임있게 授與했어야 했을 碩士 및 博士의 學位가 濫發됨으로써 上級學位의 公信力을 低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개탄해야 할 現象이 이제는 拂拭되었기를 바라지만, 간절한 바람일 뿐, 없다고 斷定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새로운 學術을 獨創적으로 開拓해 나가는 것을 目標로 하는 碩士와 博士의 課程은 學部보다는 教育費 및 研究指導費가 많이 들게 마련이다. M.M. Chambers는 學部の 初級課程 또는 初級大學課程을 기준으로 할 때 四年課程은 2배로, 그리고 大學院課程은 4배로 比率를 推定하고 있다. 그는 博士課程과 같은 上級學位課程은 高價費用이 드는 것을 감안하여 세 水準別 教育費用을 1:3:8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라는 推論도 하고 있다. Allan Carter의 경우는 初級大學, 四年制大學, 碩士課程, 그리고 博士課程의 教育 및 研究指導費를 1:1 $\frac{1}{2}$:2 $\frac{1}{2}$:3 $\frac{1}{2}$ 로 比率推定을 하고 있기도 하다.

大學院實態를 파악하기 위한 두 차례의 조사에 관여하였던 委員들의 集約된 見解에 따르면 大學院의 예산은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高價費用이 드는 事實이 예산편성에 제대로 反映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美國과 같이 풍요한 나라에서 年間 2,000億弗의 教育費 중 44%를 高等教育에 투입함으로써 비교적 大學財政이 充實한 곳에서도 經費節減과 教育效率의 提高를 위하여 協同體制가 廣範하게 構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 大學院의 協同體制 수립은 오히려 切迫한 느낌이다. 하나의 例로 國內外的 學術誌(Journals)의 共同活用 같은 일은 바람직스럽고 또 實現可能性이 높은 일이다. 예컨대 미국의 中部地域大學協議機構는 약 2,000여 개 學術誌의 共同活用體制(a periodical bank)를 세우고 있다. 그 理由는 學術誌中 10 내지 20퍼센트는 광범하게 쓰여지지만 나머지 大多數는 사용빈도가 매우 저조하여 모든 大學이 稀少使用의 學術誌를 갖출 필요

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카고에 本部를 둔 協會圖書館에 주문을 하면 24시간내에 해당문물을 복사한 것을 신청자에게 우송하는 體制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學術誌의 구입과 관리에 대한 基本費用을 大學院間에 共同負擔하고 복사비용은 受益負擔으로 하면 大學院生들의 研修를 深化시키는데 드는 費用의 節減을 期할 수 있을 것이고 모처럼 出帆한 大學教育協議會의 機能發揮의 活性化 및 專門化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Ⅲ. 教育效率의 提高

大學院프로그램의 共同開設과 學術研究資源의 相互活用은 經費節減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大學院教育의 實質의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절실히 必要한 바가 있다.

夜間課程의 專門大學院에 있어서는 科目當 수 강인원수가 過多한 것이 문제이지만 日間課程의 一般大學院에 있어서는 過少함으로 말미암아 講座운영이 不實한 경향이 짙다. 博士課程의 科目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강의 또는 세미나가 有名無實한 곳도 많다고 한다. 미국의 Pittsburgh 大學校의 경우를 보면 學部는 12명 이하, 大學院은 6명 이하이면 授業의 實效를 거두지 못하면서 財政的 負擔만 가중시키므로 閉講措置를 한다고 한다. George Peabody 大學校의 경우는 大學院科目의 標準受講生數를 15명으로 定하고, 8~22名을 正常受講生數範圍로 하여 教授負擔의 標準量으로 認定하나, 7名 이하가 되면 教授負擔을 半減算定하고 30名 이상이면 二倍負擔으로 算定하여 教授負擔을 그만큼 낮추어 주는 算法을 쓰고 있다. 단약에 위와 같은 方針을 우리나라의 大學院에 適用하면 一般大學院의 博士課程은 大多數 閉講措置를 해야 할 것이고 專門大學院의 講義擔當에 대한 教授들의 負擔은 現行보다도 훨씬 높게 算定하여야 할 것이다.

受講院生數가 적기 때문에 開設科目數가 적은 것도 大學院에서의 學問研修를 深化시키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같은 大學構內에 있는 몇 개의 專門大學院들이 제각기 閉鎖的 운영의 탈을 벗으면 院生들이 제각기의 特殊한 關心에 따라 인

접學問에 接觸 機會가 생기고 研修는 그만큼 深化되거나 폭을 넓힐 수 있는 利點이 있는 것이다. 專門大學院生들의 特徵은 經驗背景이 多樣하고 職種の 폭이 넓고 抱負에 있어서도 特殊性이 크기 때문에 個人差가 큰 異質的 集團이라고 볼 때 그리고 大學院의 性格이 廣範하고도 精緻한 學理를 探究하는데 있으므로 大學院의 開設科目은 與件이 허락하는데로 多樣할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同一大學(校)構內的 諸大學院間의 相互共同受講의 길을 트는 일은 현실적으로 별 無理없고 손쉽게 實效를 거둘 수 있는 일이다.

一般大學院의 경우 近接地域의 通學距離內에 있는 大學院間의 共同受講은 開設科目의 重複을 피하고 授業氛圍氣의 活性化를 이룩하여 經費의 節減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西江大·梨花女大, 그리고 延世大의 一般大學院間의 協同講座開設은 定着되었고, 근년에 仁荷大·中央大, 그리고 崇田大의 一般大學院間의 共同講座開設은 그 幅을 넓히면서 큰 實效를 거두고 있어서 協同體制의 先驅의 實踐示範으로 높이 評價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過多 個別主義의 경쟁心理 속에서 大學院間의 壁을 높이 쌓은 蝨居狀態로 도사리고 있을 時代는 이미 아니다. 人類福祉의 증진을 위하여 普遍妥當한 眞理를 추구하고 새로운 學術理論을 定立해가고자 하는 最高學府의 遠大한 理念具現은 國境마저도 초월할 崇高한 開放精神의 旺盛한 발휘를 必要로 하는 時代이다. 民族文化의 暢達을 통하여 世界文化形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先導的이고 創造的인 役割擔當을 자처할 矜持 높은 大學人들로서 大局的 見地에 서면 大學院間의 協同試圖에서 派生할지도 모를 사소한 이로상황을 克服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IV. 學問的 風土의 開放化

大學院間 共同講座의 開設 또는 大學院마다의 開設講座에 他大學院生들의 受講許與制의 擴大는 大學社會의 學問的 風土(Academic Climate)의 開放性 伸張에 크게 기여하는 點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特殊한 專攻課程의 上級科目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教授의 稀少性 때문에 共

同受講이 不可避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受講院生數가 適正線에 未達하는 科目들은 共同受講으로 授業의 正常化를 期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共同受講은 院生들로 하여금 異質的 學風에 接觸할 수 있는 機會가 되는 것이어서 새로운 자극을 받게 하고 院生들의 比較眼目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도 큰 意義가 있기 마련이다. 一種의 副隨的 效果 擧揚이 되는 것이지만 閉鎖的인 學問風土가 아직도 깊게 도사리고 있는 韓國의 大學院教育實際를 감안할 때 그 意義를 세롭게 볼 필요가 있다.

知識社會學의 觀點에서 Mannheim은 社會集團의 特定한 構造와 目標은 그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世界觀과 관계가 있음을 假定한 바 있어서 保守的인 集團은 靜態的 觀點을 지니는데 反하여 進步的이고 改革的인 集團은 動態的 觀點을 지니는 것을 例示한 바 있다. 이러한 知識社會學의 觀點은 學問 또는 科學에 대한 社會學的 觀點으로 이어져서 科學은 知識의 體系이거나 方法과 技術의 틀짜임이 아니라 이러한 技術의 활동을 통하여 人間이 얻어내는 實質的 知識을 擴充해가고자 하는 組織化된 社會的 活動이며 共同的 規範 속에서 이들 成員間의 關係지음이 科學의 社會的 性格을 構成하는 것이라는 觀點도 提起되고 있다. 合理性의 追究가 學問의 目標이지만 研究者가 속한 學問社會의 風土가 學風의 振作 뿐 아니라 學問研究의 方向과 性格지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른바 學派의 形成論의 뒷받침이다. 專門社會內에 存在하는 權威的 영향력은 研修者로 하여금 指導者의 觀點을 不知不識간에 받아들여서 하나의 學派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開放體制 속에서 研究者의 自律的 參與를 통하여 탄생한 學派가 學問의 長期的 發展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閉鎖的 風土 속에서 學問的 同種繁殖(academic inbreeding)의 경향이 짙어지면 學問發展에 阻害要因으로 作用할 위험이 크다. 선후배관계, 그리고 徒弟式的 師弟關係로 이어져서 大學敎員이 制限된 範圍內에서 內密裡에 充員되게 되면 溫情의 庇護 속에서 學問研究가 침체될 위험이 짙다. 냉엄한 業敎主義에 기초해서 公開모집으로 大學敎員이 充員되

어떤 學問의 混血現象이 일어나서 大學社會는 開放體制를 갖추게 되고 學問社會가 활기찬 모습을 더해 갈 수 있을 것인데 지난날의 한국대학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韓國만의 特有現象은 아닌 것 같다. 日本의 경우 우수한 大學들의 教授自給自足體制는 매우 심하여 東京大學의 경우 95.3%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學部와 大學院의 課程을 同一教授들에 의해서만 계속 教育을 받는 것은 長點이기보다는 短點이 많은 일이다. 1974年 조사를 보면 전체 大學院生의 약 22%가 受講科目 중 절반이상이 學部때의 受講內容과 類似한 것을 중복하여 수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76年제 1학기의 開設科目과 담당교수에 대한 조사를 보면 어떤 大學院의 경우 4科目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8名, 심지어 5科目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4명이 되는 극단적인 事例도 있었다. 學部課程이라도 한 학기에 4~5개 科目을 맡는다는 것은 理解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大學院에서의 일이니 閉鎖的體制 속에서의 大學院의 課程 운영이 얼마나 폐단이 큰 것인가를 실감하게 하는 일이었다.

여러가지 原因이 複合적으로 作用해서 形成된 惡習이겠지만 閉鎖性을 띠은 大學教育의 實際는 學問研修의 刷新과 深化를 위해서 하루 속히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閉鎖性의 병폐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大學院專門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가 있다.

“……大學院制度의 類型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閉鎖型이며, 이는 주로 舊日本의 傳統에 根據를 둔 것이다. 그 둘째는 開放型이며 이는 歐美式의 教育制度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閉鎖型은 徒弟教育에 의한 首弟子養成式이며, 大學院은 그 數가 적고, 教室에 所屬되고, 講座를 支配하는 主任教授를 頂點으로 하는 權威主義的·溫情主義的인 운영을 하게되며, 教室間·學科間·學部間의 壁이 견고하여 相互排他的·閉鎖的으로 운영되는 傾向이 짙다.

要컨대, 우리나라 大學社會의 開放性 伸張을 위해서는 많은 條件들이 改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 大學院生들만이라도 大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각기 專攻研修의 豐饒化와 深化를

促進할 수 있는 共同受講의 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首都市內 8개 大學校가 참여하고 있는 The Consortium of Universities of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의 경우는 共同事務局을 두고 활발한 協同體制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5,900名의 教授가 가르치는 15,000개의 科目들을 모두 受講하려면 900年이 걸리게 될 것이다.”라는 標榜的 表現을 하고 있는데 共同受講의 學問研修의 길이와 폭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가를 誇示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맺는 말

大學院間의 協同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은 關與者들의 協議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學事運營이 機關 나름의 自律性伸張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當爲性의 존중이 그 첫째 理由이고, 둘째로는 自發的 參與로 自主的인 決定이 되어야만 協同의 努力이 성공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실제적 이유를 무시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로 大學院財政의 취약성에 비추어 보면 政府와 學術財團 및 企業體의 公共支援이 個別大學院單位로서만 아니라 地域內 大學院協議體의 共同事業에 優先權을 주게 되면 協同體制의 구축은 그만큼 加速化되고 強化될 것이다.

開設講座의 共同受講은 大學院間의 協調意思만 있으면 손쉽게 이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主로 이에 대하여 論及하였으나 協同의 幅은 얼마든지 넓혀질 수가 있는 일이다. 圖書館의 相互利用許與, 實驗實習施設 및 器具의 共同使用, 그리고 一連의 特別講義를 共同企劃하고 內外의 著名學者를 초빙하는 費用을 共同出損으로 分擔하는 일 등도 大學院教育의 內實化와 經費의 節減 등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開放的 學問風土造成에 寄與할 수 있는 일이다.

한 나라의 大學(校)들이 지니고 있는 學術研修資源들은 高貴한 것이고 그만큼 限定性을 띠운 것이다. 크게는 國家的 資產이라고 해야 할 이들 稀貴한 學術研究資源들은 民族文化暢達의 創造的 觸媒인 大學院教育振興을 위한 協同體制構築에 相互開放함으로써 그 活用效率을 極大化할 때 本然의 찬란한 빛을 發하게 될 것이다.*